

---

## 일본 코로나 보험의 최근 동향

###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일본 보험업계의 대응조치 -

#### I 검토배경

---

- 2년 넘게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여러 차례의 대규모 확산이 반복되면서 일본 보험업계는 영업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측면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20년에는 확진자수 규모가 비교적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보험금 청구가 쇄도하고 있음
  - \* 2020년 누계 확진자수: 235,960명 / 2021년~2022년 2월 확진자수 3,781,495명
- 특히 보험금 청구가 많은 담보는 입원 시 입원일당/일시금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인데, 이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재택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 데에 따름
  - \* 일본 민영 의료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보다는, 입원 시 일시금이나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함
- 이밖에, 코로나 확진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특화보험의 경우도 지급보험금 규모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판매 중단 또는 요율을 개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일본 코로나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판매·지급 동향, 최근 재확산에 따른 상품 관련 대응조치를 살펴보고자 함

---

## II 주요내용

---

### 1.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보험업계 대응조치 [상품 동향]

- (코로나 보장 확대) 일본 보험사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된 2020년 4월 경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코로나 관련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완화한 바 있음**
  - 일본 정부가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경증자/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 보험업계도 의료기관 입원 뿐 아니라 자택/숙박시설에서의 요양도 입원급부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 이밖에, 코로나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사망 시 일반 질병사망보험금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함
- (코로나 특화상품 출시) 기존 상품의 지급요건 완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보험사들은 **코로나 보장에 특화된 신상품을 출시해왔음**
  - 코로나로 입원 시 통상 입원의 2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타이요생명)이나 **코로나 확진 시 입원/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금을 지급하는 상품(다이이치스마트, 다이주생명, 손보재팬 등)**
  - 이같은 상품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확대된 의료보장에 대한 니즈 및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힘입어 **높은 판매실적\***을 보임

\* 2020년 8월, 업계 최초로 출시된 타이요생명의 '감염증 플러스 입원일시금 보험'은 출시 후 1년간 계약건수 15만건 돌파(지난 10년간 판매상품 중 가장 빠른 속도)

- (지급보험금 급증)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변이 바이러스로 대규모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으며,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
  - FY2020년 1년간<sup>1)</sup> 코로나 관련 지급보험금은 480억엔 규모였으나 2021년 1분기(4~6월)만에 350억엔을 돌파했으며,
  - 2021년 8~9월에는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9월 한달에만 181억엔(10.2만건)이 지급됨<sup>2)</sup>
    - 이같은 지급보험금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보장보다 의료 보장(입원급부금)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9월 지급액 181억엔 중 사망보험금 73억엔(1,300건), 입원급부금 108억엔(1,010,000건)

- (최근 대응조치) 2022년 12월 말 이후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사상 최고의 확진자수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코로나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이나 판매 중단 등 대응조치\*를 단행
  - 일본에서 2020년 이후 2022년 2월 현재까지 출시된 코로나 보장 보험(의료보장) 및 최근 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1] 주요 보험사 코로나 보험 판매 현황

보험사	출시일	상품명	주요 보장내용 및 최근 조치
타이요 생명	2020.9월	감염병 플러스 입원일시금 보험	- 코로나 입원 시 기존 입원일시금의 2배 지급
다이이치스마트 소액단기보험	2021.4월	특정감염증 보험	- 코로나 확진 시 10만엔 지급 - '22.2월, 보험료 4배 인상
후코쿠 생명	2021.12월	감염증 서포트 플러스	- 코로나 입원 시 일시금 2배 지급 (추가보험료X) - 12.28~1.31 기간에 입원한 경우에만 적용
다이주 생명	2021.12월	상해·감염병 입원보험 오마모리프	- 코로나 입원 시 10만엔 지급 - '22.2월, 판매 일시 중단
손보재팬 (PayPay보험)	2021.12월	코로나 위로금	- 코로나 확진 시 5만엔 지급 - '22.2월, 보험료 3배 인상

1) 일본 회계연도에 따라 2020년 4월~2021년 3월

2) 요미우리신문(2021.8.11.) 『코로나 보험금 급증, 3개월에 350억엔 돌파, 2020년 1년치 수준』

요미우리신문(2021.10.22.) 『9월 확진자 급증으로 생보 지급 사상 최고 10만건/181억엔 돌파』

## 2. 주요 코로나 보험 동향

### [1] 타이요생명, 감염증 플러스 입원일시금 보험

- (보장내용) 코로나로 입원 또는 재택치료를 한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입원일시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2020년 9월)
  - 입원일시금 담보에 재해입원일시금 담보를 추가하여,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시금과 재해입원일시금을 모두 지급 (통상 불가능)함으로써 코로나 보장을 강화

[표2] 상품 개요

보험기간	10년(갱신) / 종신		
가입연령	(정기) 0~75세, (종신) 12~85세		
지급사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콜레라, 장티푸스, 사스 등 감염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재택치료를 한 경우 입원일시금 및 재해입원일시금 지급 (일시금은 1만엔~30만엔 중 5천엔 단위로 설정 가능)		
보험금	특정감염병(법정감염병 1~3종 및 코로나) 진단 시 일시금 10만엔 지급		
보험료 예시	○ 보험기간/납입기간: 10년(월납)		
	○ 보장: 입원일시금액 20만엔 / 재해입원일시금액 20만엔		
	가입연령	남성 (엔)	여성 (엔)
	20세	2,620 (460)	3,220 (360)
	30세	2,680 (440)	3,660 (340)
	40세	3,280 (460)	3,140 (340)
50세	4,700 (520)	3,800 (440)	
60세	7,340 (600)	5,260 (580)	
* 괄호 안은 감염증 플러스(재해입원일시금) 특약에 해당되는 보험료			

- (판매 동향) 출시 후 1년 만에 계약건수 15만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판매상품 중 가장 빠른 속도<sup>3)</sup>
  -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한 2021년 8월의 계약건수는 7월의 4배

3) 시사통신(2021.09.01.) 『타이요생명 코로나 보험 판매 15만건 돌파, 급부금 상한을 증액』

## [2] 다이이치 스마트 소액단기, 코로나 미니 서포트 보험

- (보장내용) 대형 생보사 다이이치생명의 자회사인 다이이치 스마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코로나 확진 시 일시금 10만엔**을 지급하는 온라인 전용보험을 출시(2021년 4월)
  - 신규 확진자수 추이에 따라 보험료가 3개월마다 변동(상한 있음)

[표3] 상품 개요

상품명	코로나 미니 서포트 보험 (정식 명칭: 특정감염병 보험)
보험기간	3개월(갱신형)
가입연령	18~69세
지급사유	특정감염병(법정 1~3종 및 코로나) 진단 시 일시금 10만엔 지급 (부담보기간: 14일)
보험료	3개월에 980엔(일시납).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달 1일 변동됨(890엔~2,270엔) * 2021년 10월, 상품 개정에 따라 보험료 범위가 조정됨(890엔~8,090엔)

- (최근 동향) 2021년 9월, 5차 대확산이 일어나면서 보험료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자 **판매를 일시 중단**했으며, 중단 1개월 후인 10월 1일 **요율을 재정비**하여 판매를 재개함<sup>4)</sup>
  - 2021년 4월 출시 당시 보험료 범위는 3개월에 890엔~2,270엔으로 설정했으나, 890~8,090엔으로 대폭 인상<sup>5)</sup>
  - 2022년 3월 기준 보험료는 3,840엔(출시 당시 대비 약 4배 수준)

[표4] 코로나 미니 서포트보험 보험료표

가입일	보험료	가입일	보험료
2021년 4월	980엔	2021년 10월	2,270엔
2021년 5월	1,270엔	2021년 11월	890엔
2021년 6월	1,270엔	2021년 12월	890엔
2021년 7월	980엔	2022년 1월	890엔
2021년 8월	980엔	2022년 2월	3,840엔
2021년 9월	2,270엔	2022년 3월	3,840엔

4) 다이이치 스마트 소액단기보험(2021.09.01.), 『코로나 미니서포트보험, 판매 일시 중단』

5) 다이이치 스마트 소액단기보험(2021.10.01.), 『코로나 미니서포트보험 판매 재개 및 새 보험요율 설정』

### [3] 다이주생명, 상해·감염병 입원보험 ‘오마모리프’

- (보장내용) 대형 생보사 닛폰생명의 자회사인 다이주생명은 코로나로 입원 시 일시금 10만엔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2021년 12월)

[표5] 상품 개요

상품명	상해·감염병 입원보험 ‘오마모리프’ (정식 명칭: 감염병 입원보장 재해의료보험)
보험기간	5년
가입연령	0~75세
지급사유	상해로 입원/수술 시, 코로나로 입원 시 일시금 10만엔 지급 - 상해 입원 1회당 재해입원일시급부금 10만엔 - 상해 수술 1회당 재해수술급부금 10만엔 - 코로나 입원 1회당 감염증입원일시급부금 10만엔 * 코로나의 경우 부담보기간 14일
보험료	남자 370엔, 여자 340엔 (연령 상관없음)

- (판매 동향) 2021년 12월 21일~2022년 2월 13일 기준 계약건수 5.7만건
- (최근 동향) 2021년 말에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수 추이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음에 따라 출시 1개월 반 만에 판매 중단 조치를 단행(2022년 2월 3일)
  - 상품을 출시한 2021년 12월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213명에 불과했지만 한달 여만인 2022년 2월에는 10만명대로 500배 가까이 폭증함
  - 기존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판매 여부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2022년 2월 22일 기준)

#### [4] 손보재팬, PayPay 코로나 위로금 보험

- (보장내용) 모바일 결제앱 PayPay\*와의 제휴를 통해 코로나 확진 시 5만엔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함(2021년 12월)

\* 4,4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표6] PayPay보험 '코로나 위로금' 상품 개요



상품명	코로나 위로금 보험
보험기간	3개월 / 6개월 / 12개월 (만기 시 자동갱신 X)
지급사유	코로나 확진 시 일시금 5만엔 지급 (부담보기간 14일)
보험료	3개월에 500엔 (2022.2월부터 1500엔으로 인상됨)

- (판매 동향) 출시 40일 만에 20만건을 돌파(22.2.1 기준)했으며 2월 9일 기준 계약자수는 35만명 수준에 달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동향)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따른 확진자수 급증과 가입자수 급증으로 보험료를 3배 인상함. 기존 계약은 보험료 변동 없으며 2022년 2월 10일 이후 가입부터 적용

[표7] 개정 전후 보험료 비교

보험기간	개정 전 보험료	개정 후 보험료
3개월	500엔	1,500엔
6개월	1,000엔	3,000엔
1년	2,000엔	6,000엔